

종합·해설

대선 프리즘

후보는 '영남' 대변인은 '호남'



이정현 공보단장 이상일 대변인 안영환 대변인 진선미 대변인 박광온 대변인 유민영 대변인

유력 대선후보는 모두 영남 출신인 반면 후보 대변인은 모두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과 깊은 인연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3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에 새누리당 안영환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상일 의원, 조윤선 전 의원,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등 4명으로 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조 대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 안 전 의원은 무안 출신으로 목포고를 나왔다. 이 대변인과 박 대변인은 각각 함평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다.

조 대변인은 서울 출신이지만 공교롭게도 남평인 박성영 변호사가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박, 이정현·이상일 문, 진선미·박광온 안, 유민영·정연순

고를 졸업해 호남과 인연이 남다르다.

특히 대구 출신인 박 후보 공보를 총괄하는 이정현 공보단장도 곡성 출신이어서 영남이 안방인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입' 역할은 모두 호남 출신이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문 후보가 경남 출신인 반면 캠프 대변인 진선미·진성준·박광온 대변인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진선미 대변인은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순창여고를 졸업했고, 진성준 대변인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까지 다녔다. 최근 대

변인단에 합류한 박 대변인은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졸업했다. 당에서 문 후보를 간접 지원하고 있는 박광온 대변인도 전북 장수 출신이다.

부산 출신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선캠프 역시 대변인들은 모두 호남과 인연이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으로 출마 선언 전부터 안 후보의 입 역할을 해온 유민영 대변인은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 동양고를 졸업하고 대학만 서울에서 나왔다.

첫 여성 민변 사무총장 출신으로 유명한 정연순 대변인은 서울 출신이지만 부모님은 전북 출신이어서 '호남의 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연성과 함께 영남 후보를 지역성을 보완하려는 캠프의 전략이 합쳐진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신당 창당설' 여진 계속

후보측 부인 불구 황석영 등 '가능한 형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신당 창당설이 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평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안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대

선 직후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안 후보 측은 23일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민 사회 일각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



23일 광주 NGO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 창립대회'에서 이승창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대외협력실장과 조정관 진심포럼 공동대표, 참가자들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손फल침을 들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재인 "정치검찰 반드시 청산"

중수부 수사가능 폐지 등 검·경 개혁안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며 검·경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야만정치, 민

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범이 돼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해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검찰의 줄

언이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소설가 황석영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 간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아 "그것도 가능한 형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무소속 대통령론이라는 게 국민 보기에 답답하니 '우리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고 신당설을 해석했다.

신당설은 안 후보가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원 중 저에게 우호적인 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거쳐 본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라는 '우호 정당'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는 게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인하초 초청 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 포기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정 당장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제시했다.

서기 인사를 혁파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확대 ▲경찰에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 참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경찰개혁과 관련,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에 정치를 동원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왔지만 저의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며 "일선 경찰서의 정보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후보들 '실탄' 마련은 어떻게

연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후보들의 선거자금 마련 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18대 대선 후보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원. 이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후원금과 정당 국고보조금이 있고 나머지는 후보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약 28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한 뒤 의석수에 따른 정당 국고보조금 약 157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금융권 대출과 차입금을 보며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재벌에 신세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

박, '금융 대출' 검토 문·안, '펀드'로 조달

에게만 빚을 지겠다"며 펀드를 통한 선거자금 마련에 착수했다. 후원금과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선거자금을 대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200억원 모금을 목표로 출시한 '문재인 담쟁이 펀드'는 하루 만에 55억여원을 모았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위원식 총무본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5000여명이 펀드에 가입해 55억이 조금 넘는 돈이 모였다"며

"펀드에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물려 홈페이지 접속이 안 돼 '돈도스(돈과 디도스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국민펀드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무소속인 안 후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펀드 모집액과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중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자신의 18.57%(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안 후보는 부족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 자산의 일부를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이 지난 4·11 총선을 전후해 당에서 탈당한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에 대한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나주·화순 지역위원회는 일부 기초의원(비례)을 제명해달라고 중앙당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25일 밤 8시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7명에 대한 복당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 대상자는 지난 4·11 총선을 전후해 탈당한 광역·기초 의원 또는 탈당한 지 1년 미만인 인사들이다. 사·도당별로는 광주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전북·강원 각각 1명씩이다.

광주지역 복당 심사 대상자는 김보

민주 광역·기초의원 7명 복당 심사

나주·화순 지역위는 일부 의원 제명 요구 논란

현·이춘문 시의원과 오광교 서구의회의원, 이병훈 전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전남은 이기병 도의원(나주) 1명이다. 만약 이들의 복당이 잠정 허용될 경우 최근 당에서 탈당했거나 제명당했던 인사들의 복당 신청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복당 심사를 보류해온 민주당이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리를 위

해 대응적인 화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재인 대선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그 대책으로 복당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나주·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배기운 국회의원)는 최근 나주시의회 박순복·김판근 의원과 화순군

의회 유영주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중앙당에 요청했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제명을 의결한 뒤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나주·화순 지역위원회는 이들 기초의원들이 지난 4·11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기 후보를 돕고, 후보가 의장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당 내부에서는 일부 국회의원 등이 대선을 앞두고 당 화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경매투자

- ▶경매 배우면서 투자할 분
- ▶NPL /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교육 / 임장 활동비 등 550만원
- ▶배우면서 단독 / 공동 투자 가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부동산 거래,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순도곡(은천모뎀) 대3234㎡, 24280㎡ 감평가 42억4천 최저가 9억7천	화정동(메식정) 대1094㎡, 24489㎡ 감평가 41억9천 최저가 21억2천	두암동(목욕탕) 대570㎡, 21256㎡ 감평가 12억9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439㎡ 감평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생촌동(원룸) 대294㎡, 21494㎡ 감평가 5억3천 최저가 3억7천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26228㎡ 감평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2629㎡ 감평가 6억3천 최저가 4억4천
--	---	---	---	---	--	---

유통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평가 10억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 ▷대지 3025평 ▷건물597평 ▷감평가 99억4천 ▷매매가격 38억 (협의후결정)	☞ 담양(금성(공정) ☞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평가 7억1600만 ▷매매가격 5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이포텍스) ☞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평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평가 39억8천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 (메식정) ☞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평가 41억5천 ▷매매가 25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리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	------------------------------------	----------------------------------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	-------------------------------------	---------------------------------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통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공장,메식장,빌딩,토지,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